

“대기업 믿고 분양받았는데” 입주 예정자 ‘멘붕’

화정 아이파크 붕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2단지) 아파트의 분양권자(청약 당첨)와 분양권 매입자(웃돈 주고 분양권 구매)들이 멘붕에 빠졌다.

입주예정자들은 대기업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믿고 당시 지역 최고의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한 경우가 많아 허탈을 넘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아파트의 2단지 '84㎡'의 경우 지난 2019년 '108.06대1'이라는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19년 6월 당첨자 발표 당시 공개된 평(3.3㎡)당 분양가 또한 1631만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특히 터미널과 백화점이 인근에 있고 입주조건이 뛰어나 분양 2년 만에 웃돈이 최고 5억원까지 붙어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다.

“연말 새 아파트 물 건너 갔다” 신뢰도 추락에 가치 하락 수 억 웃돈 분양권 매입자 등 금전적·시간적 손실 불가피 다른 동 입주예정자도 발동동

최고의 로또 아파트를 잡았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근심만 쌓인 셈이다.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것인지, 일부만 재시공을 하는 것인지, 사고가 난 201동 주변의 4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 아직 정해진 것 하나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생각이 드는 까닭이다.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수많은 변수와 법적 분쟁으로 힘든 날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다. 또 올 연말 새 아파트 입주가 부풀어 있던 입주예정자들은 모든 계획이 틀어지면서 가계 금융 계획을 전면 새로 짜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붕괴사고로 입주가 지연이 되면, 보상을 받고 새 아파트를 선택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2-3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의 금전적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투자가 나섰던 이들의 박탈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유의 아파트 붕괴 사고라는 점에서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탓에 입주가 이뤄진 후에도 '거래할박'과 '매매가 하락' 등 경제적인 가치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2단지 신축공사 현장은 5개동(아파트 316세대·오피스텔 92호) 총 408가구가 건립중이다. 이중 붕괴가 발생한 곳은 201동으로 80여 가구가 포함돼 있

다. 이같이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곳은 1개동의 80여 가구이지만 함께 공사가 진행중인 2단지 5개동 총 408가구여서, 201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동 입주자들의 불안도 크기는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인접해 공사가 진행중인 아이파크 1단지의 439(아파트 389세대·오피스텔 50호)가구도 이미지가 하락에 따른 무형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0대의 한 입주예정자는 “맛벌이를 하면서 가전제품 등 집안 살림 장만과 대출 등 금융문제를 올 연말 새 아파트 입주가 맞춰왔는데 모든 일정이 어그러졌다”면서 “이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박기웅 기자 pbxer@kwangju.co.kr

“똑같은 댐 수해인데 배상 왜 다른가” 전국 5개 댐 수해 주민들 항의 집회

“국토부, 하천·홍수관리지역 배제시킨 이의신청 철회해야”

2020년 댐 გად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국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례군 등 피해지역 주민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2020년 8월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최근 환경분쟁조정위가 구역별로 각각 48~72%만 인정하는 등 똑같은 수해임에도 배상 비율을 다르게 인정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의 이의 신청으로 전체 피해 주민의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이 이번 조정 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 년간 적법

하게 영농과 시설, 건축을 해온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물품 중 가재도구는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00만원까지만 배상 규모를 한정할 점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환경분쟁조정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 이중의 고통을 안겼다”며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폭넓은 배상을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가 범람하면서 전남·북, 충남·북, 경남 주민들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공공 사면 시민들 광주·전남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이 내린 13일 오후 두툼한 옷으로 차려입은 시민들이 광주시 동구 장동 거리를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청 경무관·총경 469명 전보인사

경찰청은 13일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박우현 경무관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총경 46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안보수사과장으로 김홍균 담양서장이 오게됐고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문병훈 여수서장이 맡는다. 112차안중합상황실장은 김남희 곡성서장이 발령됐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으로 임상준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이 부임한다. 경비과장에 조남형 총경, 수사과장으로 윤주현 서부서장이 자리를 옮긴다.

동부서장은 김범상 광주청 안보수사과장, 서부서장은 백형석 광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이 발령됐고 남부서장은 양우천 총경이 맡는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정재봉 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이 오게됐고 경

비과장으로 김인병 총경, 수사과장은 주현식 총경, 과학수사과장에 장익기 구례서장이 각각 발령났다. 안보수사과장은 임태오 장흥서장, 생활안전과장에는 박종열 총경이 맡게됐고 공평원 총경은 여성청소년과장, 박승희 총경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규형 총경은 수사심사담당관으로 부임한다.

또 여수서장으로 정성록 전남청 경비과장, 무안서장에 박삼현 총경, 장흥서장은 김상호 총경이 각각 맡는다. 함평서장은 이용관 광주청 경비과장이 자리를 옮기고 담양서장으로 국승인 광주청 수사과장이 발령났다. 위동섭 총경은 강진서장으로 가게 됐다. 곡성서장은 김경규 총경, 완도서장으로 정원균 전남청 안보수사과장, 구례서장은 박임규 전남청 생활안전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성범죄자 신상고지 개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혜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영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 (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단장일지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

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런 무죄 선고를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중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성범죄자 신상고지 개선 카카오톡·네이버앱 동시 확인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 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때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다.

기존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 앱 이용 선호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